



상담에서 여러 학파의 이론적 차이를 넘어 상담성과를 위한 공통적 요소로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Norcross, 2002). 많은 상담자들은 상담관계의 질이 성공적인 상담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Highlen & Hill, 1984; Horvath & Greenberg, 1989). 상담관계는 작업동맹(working alliance), 전이(transference), 그리고 실제관계(real relationship)로 구성된다(Gelso & Carter, 1994; Sexton & Whiston, 1994). 상담관계를 의미하는 개념들 중에서 작업동맹은 상담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최근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작업동맹은 Freud로부터 시작하여,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자아동맹(ego alliance),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 Greenson의 작업동맹(working alliance), 조력동맹(helping alliance), 그리고 Bordin의 작업동맹(working alliance)에 이르기까지 개념적 변화와 발달을 가져왔다. 동맹개념변화에 따라 1970년대 후반부터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측정도구에는 대표적으로 VVPS, PENN, TAS, CALPAS 그리고 WAI가 있다. 그중 VVPS는 정신역동적 관점을 바탕으로 Vanderbilt 대학 연구팀의 영향을 받아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Henry & Strupp, 1994). PENN 척도는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비롯되었으며, Luborsky의 동맹연구 영향을 받았다(Luborsky, McLellan, Woody, O'Brien, & Auerbach, 1985). TAS와 CALPAS는 전통적인 정신역동적 동맹개념과 Bordin의 후속 연구의 영향을 받았다(Gaston & Ring, 1992). WAI는 Bordin의 범이론적 관점에서 고안되었다(황진희, 2000 재인용). 이와 같은 작업동맹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측정도구의 개발에 따라 작업동맹이 상담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작업동맹의 측정시

기와 작업동맹수준에 따라 상담성과를 예측하는 정도를 밝히는 연구들과, 작업동맹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많아지게 되었다(Mallinckrodt & Nelson, 1991). 작업동맹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는 크게 내담자요인, 상담자요인, 그리고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반영한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관계에서 작업동맹의 중요성에 따라 최근에는 작업동맹이 형성되어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6편의 작업동맹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 개관연구로는 김충희(1999)와 김은하, 박승민(2011)의 연구가 있었다. 김충희는 작업동맹의 역사, 정의와 효과 및 작업동맹에 영향을 주는 변인 등 작업동맹에 대해 전반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개관을 다루고 있다. 김은하와 박승민(2011)은 1992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작업동맹에 관련된 연구 88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작업동맹에 관한 주제별, 방법별, 작업동맹의 측정도구 등 국내 연구의 동향을 정리 하였다. 그 후로도 작업동맹의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외 연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상담관계의 작업동맹 개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작업동맹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출판된 작업동맹 연구들을 중심으로 작업동맹 개념 및 측정도구, 유사개념과 구별, 관련변인, 작업동맹의 변화, 작업동맹과 성과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업동맹에 대한 전반적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이론적 배경

### 동맹 개념정의와 측정도구

동맹은 정신분석 이론의 Freud(1912/1966)로부터 시작하여, 자아동맹, 치료동맹, 조력동맹, 작업동맹 등의 다양한 개념적 변화를 가져왔다. 개념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에 따른 측정도구가 197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동맹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측정 및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풍부한 자료를 얻어낼 수 있는 양적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동맹개념 정의와 그에 따른 측정도구인 반더빌트 치료동맹 척도(Vanderbilt Psychotherapy Process Scale of Vanderbilt Therapeutic Alliance Scale: 이하 VPPS/VTAS, Gomes-Schwartz, 1978), 조력동맹 척도(Penn Helping Alliance Scale: 이하 PEN/HAQ/Acs/HAr, Luborsky, Crits - Christoph, Alexander, Margolis, & Cohen, 1983), 치료동맹 척도(Therapeutic Alliance Scale: 이하 TAS, Marziali, 1984), 캘리포니아 심리치료동맹 평가 시스템(California Psychotherapy Alliance Rating System: 이하 CALTARS, Marmar, Weiss, & Gaston, 1986), 캘리포니아 심리치료동맹 척도(California Psychotherapy Alliance Scales: 이하 CALPAS, Marmar, Gaston, Gallagher, & Thompson, 1989), 작업동맹 척도(Working Alliance Inventory: 이하 WAI, Horvath & Greenberg, 1989)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동맹은 정신분석 이론의 Freud(1912/1966)로부터 비롯되었다. Freud(1912/1966)는 치료적 관계를 현실적인 협조측면과 왜곡된 측면으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치료자는 내담자를 이해하면서 내담자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이고, 내담자는 치료자에 대해 애착함으로써 치료적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비록 Freud가 동맹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관계의 중요성을 논하였고, 이 관계의 중요성은 작업동맹의 개념화의 시작점이 되었다.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Freud와 맥을 같이하는 Sterba(1934)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합리적 측면 사이에 동맹 필요를 언급하면서 자아동맹(ego alli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아동맹이란 상담자와 함께 내담자가 성숙한 자아기능을 발휘하여 자신의 방어와 전이 반응을 관찰하여 과제를 이행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성공적인 상담진행을 위해 내담자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담자의 합리적 자아(reasonable ego)와 상담자의 분석적 자아(analysing ego)간에 자아동맹이 형성된다고 보았다(Gaston, 1990). 또 다른 연구자 Zetzel(1956)은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애착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치료적 동맹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또한 치료적 동맹은 과거 모-자관계의 좋은 측면이 반복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담자가 상담자와 함께 자신의 건강한 자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념화하였다. 아울러 그는 내담자가 상담자의 해석을 근거로 자신과 상담자간의 관계가 현실에 근거한 관계인지, 전이의 관계인지를 구별하는데 치료적 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Zetzel, 1956). 이와 같은 개념화에 따른 치료적 동맹척도로 VPPS/VTAS, TAS, CALTARS가 있다. 이중 VPPS/VTAS 동맹척도는 반더빌트 대학연구팀의 Gomes-Schwartz(1978)에 의해 숙련된 상담자와 비숙련 상담자간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주로 정신역동적 이론을 근거로 관찰자 평정도구로

만들어졌다. VPPS는 탐색적 과정, 내담자 몰입, 상담자가 제공한 조건을 반영하는 것 등 84문항으로 리커트식 6점 척도로 평정된다(Gomes-Schwartz, 1978). 이후 Gomes-Schwartz(1978)는 44문항으로 줄여 VTAS를 개발하였다. 이후 Henry와 Strupp(1994)가 VTAS 주성분 분석 결과 상담자 기여, 내담자 기여, 내담자-상담자 상호작용 등 세 가지 하위요인(Henry & Strupp, 1994)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신역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TAS는 동맹형성의 역할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나누어 내담자와 상담자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관찰자 평정도구로 고안되었다(Marziali, 1984). TAS는 내담자의 긍정적 공헌, 상담자의 긍정적 공헌, 내담자의 부정적 공헌, 상담자의 부정적 공헌으로 구성되어 있다(Marziali, 1984). 그리고 Marmar, Weiss와 Gaston(1986)은 TAS의 심리측정의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 CALTARS를 개발하였다. CALTARS는 관찰자 평정도구이며 구성요소로는 내담자의 자기개방, 내담자 작업능력 그리고 상담자 이해와 몰입의 3영역과 내담자의 적대적 저항, 상담자의 부정적 개입 등 모두 다섯 가지 영역이다(Marmar, Weiss, & Gaston, 1986). 이후 Greenson(1965)은 작업동맹(working alliance)이라는 용어를 제안하면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현실에 근거한 협력관계로 개념을 정리하였다. 작업동맹을 상담 장면에서 목적으로 작업하는 내담자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작업동맹을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이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더불어 작업동맹을 형성하는 핵심요소는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내담자의 동기, 상담자와 협력하려는 내담자의 의식적인

고 합리적인 의지, 상담자의 지시와 통찰을 따른 내담자의 능력으로 지적하였다. 즉, 작업동맹 형성 요소를 내담자의 동기, 의지, 내담자의 능력으로 보았다(Greenson, 1965).

동맹개념의 진보가 Luborsky(1976)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는 동맹이 역동적인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조력동맹(helping alliance)을 두 유형으로 범주화 하였다. 유형1동맹은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자신을 돕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단계이며 주로 초기에 형성되는 것이다. 유형2동맹은 치료자와 내담자가 우리라는 느낌으로 서로 도와 공동의 목표 즉, 내담자 문제를 작업하는 것으로 후기에 많이 나타난다. 조력동맹은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 동맹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에 따라 Luborsky 등은(1983)은 정신역동적 치료에 대해 광범위하게 PENN 척도를 개발하였다(Luborsky et al., 1983). PENN 척도는 관찰자 평정도구로 조력동맹을 유형1과 유형2의 범주로 나누어 동맹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더 나아가 Bordin(1976, 1980, 1989, 1994)은 작업동맹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제안하면서 Greenson의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현실에 근거한 협력관계를 기초로 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변화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정신분석에서 논의되어 온 동맹을 범 이론적 개념(pan-theoretical)으로 소개하며, 작업동맹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의식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공유된 목표를 향해 서로 협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Bordin, 1976). 상담초기에는 미해결된 과거의 문제가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상담 전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이에서 교류되는 ‘지금-여기’의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Bordin(1989)은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협력(collaboration)과 합의(agreement)의 양방향을 중시하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과 상호 협력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작업동맹을 세 가지 구성요소인 유대, 목표, 과제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구성요소가 상담과정에서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상담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작업동맹의 구성요소인 목표(goal)는 상담목표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이해와 합의를 말한다. 과제(task)는 상담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이해와 합의이다. 마지막으로, 유대(bond)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전용오, 2000. 재인용). 세 차원인 목표(goal), 과제(task), 유대(bond)의 구성요소를 통합하는 원리는 협력이다(Bordin, 1994; Horvath, 1994; Horvath & Luborsky, 1993; Horvath & Symonds, 1991). 앞에 서술한 Greenson(1965)의 작업동맹과 Bordin(1976, 1980, 1989, 1994)의 작업동맹은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 Greenson의 작업동맹은 내담자의 능력을 강조 즉, 내담자의 동기와 의지를 바탕으로 한 내담자의 능력을 증시한 반면 Bordin의 작업동맹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상호협력을 강조한 것이 다른 점이다. 작업동맹에 대한 Bordin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측정도구인 CALPAS와 WAI가 대표적이다. CALPAS척도는 Marmar와 그의 동료들(1989a)이 Bordin(1979)의 이론적 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표와 과제에 대한 합의를 반영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CALPAS를 만들었다. 총 24문항으로 내담자의 작업능력, 내담자의 공헌, 목표와 전략에 대한 내담자-상담자의 상호간 합의, 상담자의 이해와 개

입 등 네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보고식 평정방법을 취한다(Horvath, 1994; Gaston, 1990). 그리고 Bordin이 제시한 작업동맹 정의에 따라 Horvath와 Greenberg(1989)는 목표에 대한 합의 12문항, 과제에 대한 동의 12문항, 정서적 유대 12문항으로 3차원을 측정하는 36문항의 작업동맹 질문지(WAI)를 개발하였다. WAI는 7점 리커트 척도로, 각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작업동맹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평가자의 유형에 따라 내담자용, 상담자용, 관찰자용의 세 종류가 있다. WAI는 이전의 작업동맹 측정도구와 달리 내담자, 상담자, 관찰자용으로 나누어지며 자기보고식의 측정방법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목표, 과제, 유대의 3차원으로 나누어 작업동맹의 구성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Bordin의 개념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최근에 대인적 관점에서 작업동맹이 변화의 주체가 되며,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영향을 주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 상호작용이 상담과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보았다(Greenberg & Mitchell, 1983; Mitchell, 2000; Fosha, 2000; Jones, 2000; Safran & Muran, 2000, 민경화 2012 재인용).

이와 같이 앞의 서술한 바에 의하면 동맹 개념은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내담자의 능력을 증시한 자아동맹(ego alliance-내담자가 성숙한 자아기능을 발휘하여 자신의 방어와 전이 반응을 관찰하여 과제를 이행하는 능력),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내담자가 상담자와 함께 자신의 건강한 자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Greenson의 작업동맹(working alliance-상담 장면에서 목적적으로 작업하는 내담자의 능력)이 있고, 두 번째, 동맹 자체의 변화(유형1: 내담

자가 상담자에게 자신을 돕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단계, 유형2: 내담자와 상담자가 우리라는 느낌으로 내담자 문제를 작업하는 것으로 유형1에서 유형2로 변화를 말함에 중점을 둔 조력동맹(helping alliance)이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중요성을 증시한 Freud와 Bordin의 작업동맹이 있다. 특히 Bordin의 작업동맹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협력(collaboration)과 합의(agreement)의 양방향을 증시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상호협력을 강조하였다. 동맹 개념의 정의에 따라 측정도구에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치료동맹 개념 정의에 따른 측정도구인 VPPS/VTAS, TAS, CALTARS가 있다. 조력동맹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로 PENN, Bordin의 작업동맹을 측정하는 도구로 CALPAS와 WAI가 있다.

#### 작업동맹과 유사 구성개념간의 구별

사실, 작업동맹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유사 개념들 간의 변별일 것이다. 그동안 작업동맹은 치료적 동맹, 상담관계, 치료적 관계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작업동맹과 혼용되어온 개념들을 정리해봄으로써 작업동맹 개념 이해 및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 작업동맹과 치료동맹

Bordin의 작업동맹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의식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공유된 목표를 향해 서로 협조해 나가는 것이다. 작업동맹의 구성요소로 유대, 목표, 과제로 구분된다. 반면 Zetzel의 치료동맹은 과거 모-자관계의 좋은 측면이 반복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담자가 상담자와 함께 자신의 건강한 자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와 같이 작업동맹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합의와 협조를 강조한 반면 치료동맹은 내담자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Cabaniss, Cherry와 Douglas(2015)는 치료적 동맹을 치료자가 내담자와 함께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하는 둘 사이의 신뢰라고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그들은 치료동맹의 기본을 신뢰로 하였으며 치료동맹의 구성요소로 관심(interest), 공감(empathy), 이해(understanding)라고 하였다(Cabaniss, Cherry, & Douglas, 2015, 박용천, 오대영 역). 따라서 작업동맹과 치료동맹을 비교해 볼 때 구성요소간의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작업동맹의 구성요소인 목표, 과제, 유대 각각의 12항목으로 총36항목으로 구성되어 작업동맹의 정의에 따른 측정도구로서 대표적인 WAI가 있다. 치료동맹의 측정도구로 VPPS는 탐색적 과정, 내담자 몰입, 상담자가 제공한 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VTAS는 상담자 기여, 내담자 기여, 내담자-상담자 상호작용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료동맹을 측정하는 TAS 또한 내담자의 긍정적 공헌, 상담자의 긍정적 공헌, 내담자의 부정적 공헌, 상담자의 부정적 공헌으로 이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CALTARS도 내담자의 자기개방, 내담자 작업능력, 상담자 이해와 몰입 내담자의 적대적 저항, 상담자의 부정적 개입으로 구성된다. 치료동맹을 측정하는 VPPS, VTAS, TAS, CALTARS의 공통점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개념적 정의와 측정도구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았을 때 작업동맹과 치료동맹은 상이점이 존재한다.

### 작업동맹과 상담관계

상담학사전(김춘경, 2016)에서 표기한 상담 관계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담자의 도움으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로 정의하면서, 이 관계는 상담 초기단계에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상담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체언어와 음성언어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역동적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의 질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상담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상담 초기에 내담자는 대부분 수동적이고 의존적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내담자를 상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상담자는 내담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기노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진실한 태도 등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김춘경, 2016). 또한 Gelso와 Carter(1994), Sexton과 Winston(1994)는 상담관계는 작업동맹(working alliance), 전이(transference), 그리고 실제 관계(real relationship)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상담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의 중요성과 초기에 관계형성을 위한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반면 작업동맹은 상담자, 내담자 관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상담의 전 과정에서 공유된 목표를 향해 서로가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작업동맹과 치료적 관계(therapeutic relationship)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치료적 관계라는 용어는 Freud(1912/1966)가 치료자가 내담자를 이해하면서 내담자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이고, 내담자는 치료자에 대해 애착함으로써 치

료적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치료적 관계를 구분하였다. 한편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를 치료적 관계라고 언급하였다. 실존주의적 심리치료의 핵심은 치료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두 세계 내 존재(being-in-the-World)가 함께하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적 만남은 지금-여기서 일어나는 치료자와 내담자 모두의 주관적 경험을 포함한다. 치료자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에 있어서 치료자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치료자의 내담자에 대한 치료적 태도를 알롬(Yalom, 2007)은 치료적 사랑(therapeutic love)이라고 했는데, 이는 전이(transference)와 저항(resistance)을 포함한 다른 어떤 치료적 문제보다도 중요하다. 실존주의적 심리치료과정에서는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적 관계는 나-당신(I-thou) 관계(Buber, 1970)의 특별한 형태다. 그러한 관계를 알롬(2007)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애정 어린 우정(loving friendship)이라고 불렀다. 다시 말해, 내담자는 치료자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치료자는 자신의 개인적 필요와 더불어 내담자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진정한 돌봄과 배려의 만남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아울러 치료자는 동시에 두 공간에 있는데 하나는 자신에게 다른 하나는 내담자에게 진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내담자를 진정으로 돌봄으로써 치료자는 내담자와의 친밀감이 촉진되도록 한다. 비록 내담자가 화를 내거나, 적대감을 표출하거나, 진실하지 못하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우울하거나, 매력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치료자는 내담자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감정을 가져야만 한다(김춘경, 2016. 재인용). 치료적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내담자는 치료자의 진정한 개방성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김춘경, 2016). 이와 같이 치료적 관계는 치료자가 주축을 이루어 치료자의 헌신을 바탕으로 내담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작업동맹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하는 협력을 강조하였다.

#### 관계형성의 모델과 작업동맹에서 상담자-내담자 상호작용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담관계를 관계형성이론들 중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이론들에서 작업동맹 형성에 있어 이론적 접점을 찾고자한다. 먼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관계형성이론인 Heider의 인지적 조화이론(1958), Newcomb의 A-B-X이론(1961, 1971), 상호의존이론(Kelly & Thibaut, 1978), Rusbult(1980)의 투자모형 등을 중심으로 관계형성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Heider의 인지적 조화이론(1958)은 지각자(P), 타인(O), 어떤 대상(X)에 대한 관계를 설명한다. 인지의 불균형 상태는 긴장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균형으로 복귀하려는 힘을 가져온다고 가정했다. 그는 균형상태란 지각된 단위와 경험된 감정이 긴장하지 않고 공존하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관계형성이론들 중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Newcomb의 A-B-X이론(1961, 1971)은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가정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서로가 어떤 대상에 대해 유사한 태도들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면 어떤 균형상태가 존재한다. 만일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

지만 자기들이 유사하지 못한 태도들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면 불균형이 존재한다. 불균형인 경우 사람들이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다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자신의 대상이나 타인에 대한 감정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균형을 회복시킬 것이다. 불균형이 클수록 서로가 의사소통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Kelly와 Thibaut(1978)은 모든 관계의 핵심은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상호작용할 때 각자의 행동들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상호의존이론을 정립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Kelly와 Thibaut(1978)의 연구에 대한 확장모델로 Rusbult(1980)의 투자모형이 있다. Rusbult(1980)의 투자모형은 개인이 인지하는 관계에 대한 만족의 수준(satisfaction level), 대안의 질(quality of alternatives), 그리고 투자 규모(investment size)를 수치화하여 관계의 몰입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이다. 전반적인 만족 수준(OX: outcome value of relationship X)과, 대안(OY: outcome value of relationship Y), 함께했던 시간, 돈 등의 물질적 투자와 공유한 내용 등 무형의 투자를 합한 투자규모(IX: investment size of relationship X)의 세 가지 요소가 관계에 있어 몰입(COMX: commitment of relationship X)수준을 결정한다. 요약하면 관계형성에 있어 서로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고,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오며, 관계를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몰입수준의 정도가 정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상담관계는 대인적 관점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영향을 주어 상호작용하



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 상호작용이 상담 과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보았다(Greenberg & Mitchell, 1983; Mitchell, 2000; Fosha, 2000; Jones, 2000; Safran & Muran, 2000, 민경화, 2012 재인용). 상담관계의 주체인 상담자와 내담자도 상대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상담관계형성이 달라진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상담자와 상담에 대한 기대, 상담자의 전문적인 능력에 대한 확신, 상담자의 진솔한 태도 등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지각하게 되면 상담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상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내담자를 동기가 낮고, 적대적, 비판적, 인간적인 장점들이 없거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는 경우 좋은 상담관계 형성은 어렵다(최한나, 2010).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발생하는 작업동맹에 있어서도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과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지각으로 이루어지므로 상호작용 과정이 중요하다(Kivlighan, 2007). Kivlighan(2007)은 상담자와 내담자를 대상으로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간의 상호성을 살펴본 결과, 회기 깊이에 대해서 내담자의 작업동맹이 상담자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상담자의 작업동맹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업동맹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상담회기평가를 높게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상담회기평가를 높게 평가하였다(하철오, 신희천, 2014). 즉, 작업동맹 형성이 잘 되면 상담회기 평가도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나타낸다. 한편 상담자의 작업동맹형성은 내담자의 상담회기 평가를 잘 예측하지 못했으나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은 상담회기평가를 예측하였다(Zilcha-Mano, Muran, Christopher, & Eubanks, 2018). 언어 상호작용에서도 상담자의 긍정적

개입이 유의미한 경우 내담자가 작업동맹을 높게 지각하여 작업동맹 점수가 높아 작업동맹이 잘 형성되었다(김선경, 1992; 김성은, 김동민, 2014). 상보성 측면에서 힘과 관여를 중심으로 상담초기 작업동맹 지각과 상담자-내담자 언어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을 때 상담자-내담자 간에 힘 차원에서의 상보적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났고, 관여차원에서는 상담자의 높은 관여 반응과 내담자의 높은 관여 반응의 연계비율이 작업동맹 수준이 높은 사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김동민, 1993). 아울러 상담자의 통제 행동에 상보적인 반응은 작업동맹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비상보적인 상호작용은 작업동맹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아울러 우호적 측면에서의 상보적 상호작용은 작업동맹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김지은, 이장호, 1994). 이와 같이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관계형성 이론들과 상담관계, 작업동맹형성의 공통점은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담자 문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상담자가 작업동맹을 잘 맺고(Kivlighan, & Schmitz, 1992), 사회적으로 대인관계를 잘 형성한 내담자가 작업동맹을 잘 형성하였다(Mallinkrodt, & Nelson, 1991).

작업동맹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

#### 내담자 변인

작업동맹형성에 영향을 주는 내담자 특성으로 Horvath와 Greenberg(1994)가 제시한 세 가지 범주 즉, 대인관계 능력범주, 개인내적 역동범주, 진단적 특성의 범주가 있다. 이에 세 가지 범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인관계 능력(interpersonal capacity)범주로 내

담자가 아동기 때 부모와 맺은 유대관계의 질과 작업동맹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Mallinkrodt 등(1991)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내담자의 사회적 관계 질이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수준과 유의미하였다. 즉, 치료 전 사회적 지지가 높았던 내담자들이 상담 장면에서도 작업동맹을 더 잘 형성한다. 반면 내담자가 과거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작업동맹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조영주, 1997; Mallinkrodt, & Nelson 1991; Mallinkrodt, Coble, & Gantt, 1995). 둘째, 개인내적 역동범주(interpersonal dynamics)로 내담자가 상담자와 친밀함 또는 의존과 같은 애착을 잘 형성할수록 작업동맹이 잘 이루어진다(Kivlighan, Patton, & Foote, 1998). 또한 불안 애착과 작업동맹 간에 부적상관이 있으며(Mallinkrodt, Porter, & Kivlighan, 2005; 구정은, 2006; Sandra, Annily, Alison, & Katherine, 2016). 안정애착유형의 내담자는 작업동맹을 높게 지각하였고(황옥경, 2002),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작업동맹 수준은 낮았다(김지민, 정재홍, 2009). 반면, 내담자의 성인애착인 불안 및 회피애착은 작업동맹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Romano, Fitzpatrick, & Janzen, 2008; 윤희섭, 정현희, 2012)있었다. 이외에도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방어성이 높은 내담자(신희천, 이장호, 1998)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김현숙, 심혜숙, 2012)은 작업동맹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한편, 내담자의 자기은폐 성향은 작업동맹과 유의미하지 않았다(손진희, 유성경, 2004). 마지막으로 진단적 특성의 범주로 사회적 지지의 증가는 증상감소와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었다(Mallinkrodt et al, 1995). 즉, 작업동맹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증상감소에 간접

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 상담자의 타당화 개입에 관한 연구가 있다. 타당화란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를 제안한 Linehan(1997)이 경계성 성격장애 내담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치료 과정에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전략들과 함께 그 치료적 과정을 강화시키고 치료적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고안한 상담자 개입 전략으로 내담자의 행동, 정서, 사고를 수용하는 핵심적인 전략이다(Lynch, Champman, Rosenthal, Kuo, & Linehan, 2006; 성예경, 최한나 2011 재인용). 내담자가 경험한 상담자의 타당화 개입에 작업동맹이 완전 매개하여 회귀평가에 영향을 미쳤다(성예경, 최한나, 2011). 그 외에 내담자의 작업동맹이 내담자의 진로탐색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이수진, 김봉환, 2016). 작업동맹은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만족도와 상담만족도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최정호, 한영주, 2015). 마찬가지로 내담자의 작업동맹은 상담만족도에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작업동맹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유대관계를 많이 경험할수록 상담만족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연, 장재홍, 2011). 이와 같이 작업동맹형성에 영향을 주는 내담자 특성으로 내담자의 사회적 관계의 질, 가족관계 그리고 생활상의 스트레스 사건, 내담자의 동기, 심리학적 상태, 대상관계의 질, 태도, 내담자 증상의 심각성, 예후 정도 등이 있다.

### 상담자 변인

상담자는 작업동맹 형성을 위한 중요한 주체가 된다(Skovholt, 2001). 작업동맹형성에 영향을 주는 상담자 특성에 대한 Beutler와 그의 동료들이(2004) 제시한 네 가지 범주 즉, 관찰

가능한 특성, 관찰 가능한 상태, 추론된 특성, 추론된 상태 등이 있다(Beutler et al., 2004). 관찰 가능한 특성(observable trait)은 상담자의 성별과 나이 등의 외적 특성이다. 관찰 가능한 상태(observable state)는 교육과 훈련, 상담자의 발달, 상담자의 훈련정도, 전문적 경험, 전문적 훈련 유형, 치료적 촉진 기법 등의 외적 상태를 말한다. 추론된 특성(inferred trait)은 개인적 특성, 상담자 가치관, 성격, 태도, 상담자의 정서적 안녕 등의 내적 특성이다. 추론된 상태(inferred state)는 상담자의 윤리, 이론적 지향, 관계형성능력 등의 내적 상태를 의미한다(주은선, 박영주, 2015). 이에 Beutler와 그의 동료들(2004)의 목록을 인용한 주은선, 박영주(2015)가 분류한 목록을 참고로 관찰 가능한 특성, 관찰 가능한 상태, 추론된 특성, 추론된 상태의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찰 가능한 특성(observable trait)으로 상담자의 여성성은 작업동맹의 정서적 유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나(박혜숙, 김명권, 2005), 상담자의 남성성과 남성상담자의 감정억제와 작업동맹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정민선, 김지현, 2013). 이와 같은 결과는 상담자의 성별과 작업동맹과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다만, 상담자의 여성성은 작업동맹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유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찰 가능한 상태(observable state)로 상담자의 훈련수준에 따라 작업동맹의 하위 구성요인인 목표 및 과제 차원에서 차이가 뚜렷하지만 유대차원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Mallinckrodt & Nelson, 1991; 윤경자, 1993). 그리고 상담경력이 많은 상담자일수록 작업동맹 형성에 더 안정적이며, 상담자가 지각하는 작업동맹 점수도 높았다(강혜영, 1995; 황인호, 2005). 한편, 상담자의 경력수준과 내

담자가 지각하는 작업동맹 수준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도 있다(조민경, 장유진, 2018; 심정미, 2017 재인용; 구정은, 1999; Dunkle & Freidlander, 1996). 한편, 내담자가 상담자의 전문성을 높게 지각한 경우 작업동맹의 수준이 높아졌다(조민경, 장유진, 2018). 그리고 상담자의 타당화 개입은 내담자의 회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작업동맹이 완전 매개하고(성예경, 최한나, 2011), 상담자와 내담자간 작업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성호, 이장호, 1997). 반면 상담자의 즉시성은 작업동맹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영석, 등, 2012). 셋째, 추론된 특성(inferred trait)으로 전이와 역전이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Gelso와 Mohr(2001)는 상담초기에 일어나게 되는 역전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은 작업동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Gelso & Mohr, 2001; 윤희섭, 정현희, 2012; 황인호, 2005). 더 나아가 상담자의 높은 역전이 관리능력은 내담자에 대한 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작업동맹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조화진, 김민정, 2018). 또한 상담자의 역전이의 활용은 내담자의 상담만족도에 완전 매개하였다(한은주, 최한나, 2013). 그리고 Truax(1963)는 상담자의 어떤 이론적 배경보다도 상담자의 성격 특성에 의해 상담결과가 좌우된다고 하였다. 상담자 5요인 성격특성 중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은 작업동맹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신경증은 작업동맹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조재현, 최한나, 2017). 또한 상담자의 내현적 자기에 특성은 작업동맹과 부적상관을 보인 연구도 있다(김현숙, 심혜숙, 2012). 상담자 안전 애착과 내담자,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 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이수정,

2005; Diener & Monroe, 2011; 윤희섭, 정현희, 2012; Sandra et al, 2016). 또한 작업동맹의 하위요인인 목표합의에 대해 상담자의 불안에착이 부적으로 유의미 했다(구정은, 2006; 조화진, 김민정, 2018; Diener & Monroe, 2011; O'Connor, Kivlighan, Hill, & Gelso, 2019). 마지막으로 추론된 상태(inferred state)로 Kivlighan과 Schmitz(1992)는 내담자 문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상담자가 작업동맹을 잘 맺고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Henry와 Strupp(1994)은 상담자가 자신의 과거 관계에 대해 내적으로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가 작업동맹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Foreman과 Marmer(1985)는 상담자가 갈등이 되는 치료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작업동맹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작업동맹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특성으로 내담자를 존중할 줄 알며 신뢰를 바탕으로 관심을 가지며 우호적임, 따뜻함, 개방성 등으로 보았다(Foreman & Marmer, 1985). 또한 전문적 활동으로 상담자의 유연성, 정직성, 숙련도를 들었다(Ackerman & Hilsenroth, 2003). 상담자의 적대감 수준이 낮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낄수록 작업동맹의 유대척도와 정적상관이 있다(Dunkle & Friedlander, 1996). 그리고 상담자의 진정성은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홍정순, 2017). 이러한 결과는 내담자와 마찬가지로 상담자의 개인적 역사도 역시 치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Bordin, 1976). 상담자의 진정성은 내담자 보고한 작업동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상으로 작업동맹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요인과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상담자의 성별, 나이 등의 외적 특성은 작업동맹형성에 영향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담자의 여성성은 작업동맹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유대와 관련됨이 보고하고 있다. 훈련, 경력, 기법 등의 외적 상태 중 경력자일수록 상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형성에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형성에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상담자의 정서적 안녕, 가치 등의 내적 특성과 관계형성능력과 같은 내적상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의 외적특성보다 외적상태 및 내적요인 그리고 내적상태가 작업동맹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 관계 발달 모델 및 작업동맹의 변화와 발달유형

상담관계는 상담의 시작에서부터 종결까지의 진행에 있어 시간의 흐름이 존재한다. 이에 관계형성에 있어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관계발달 모형에서 작업동맹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찾고자 한다. 관계 발달 모형에는 Knapp와 Vangelisti 관계발전 모형(2008), Levinger의 ABCDE모형(1980, 1983), Altman과 Taylor(1973, 1987)의 사회침투이론 등이 있다. 관계의 발전과정은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이러한 단계를 거쳐 변화해 나간다(설기문, 2002; Knapp & Vangelisti, 2008). Knapp와 Vangelisti 관계발전 모형은 관계가 형성되어 발전하는 과정을 여섯 단계 즉, 시작단계, 실험단계, 심화단계, 통합단계, 재협상 단계, 동맹단계의 순으로 발전한다는 모형이다. 첫 번째, 시작단계(initiating stage)는 최초의 만남과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단계로 피상적인 수

준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실험단계(experimenting stage)로 상대방에 대해 탐색하는 단계를 말한다. 관계촉진은 여러 번 만남과 그에 따른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맞추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세 번째, 심화단계(intensifying stage)는 좀 더 친한 관계수준으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여 관계를 발전시켜 감에 따라 친밀성 및 신뢰수준이 증가하여 서로의 관계가 심화된다. 네 번째, 통합단계(integrating stage)는 심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단계이다. 신뢰와 자기노출이 더욱 심화되어 서로의 관계가 최고의 상태로 깊어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다섯 번째, 재협상단계(renegotiating stage)는 스스로 관계 자체를 다시 냉정하게 따져 보고 재검토해 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과 생각이 들게 되고 관계를 지속시킬 때 어떤 투자(cost, input)를 더 해야 하는지, 그 투자에 대한 대가(benefit, output)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서로의 불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노력을 하여 성공하게 되면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반면, 재협상에 실패하게 되면 불만을 지닌 채 피상적인 관계를 지속시키기도 하고 아예 관계를 청산하기도 한다. 여섯 번째, 동맹단계(bonding stage)는 만족스런 재협상 결과에 따라 이제 관계를 공식화시키려는 일종의 계약이다(김중운, 2018). 또 다른 관계발전 모형에 Levinger의 ABCDE모형이 있다. Levinger(1980, 1983)에 의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계는 A지면(acquaintance), B구축(buildup), C지속(continuation), D악화(deterioration), E종식(ending)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A는 지면(acquaintance) 단계로 상호관계의 시작되는 단계이다, B는

구축(buildup)이다. 구축단계는 가벼운 대화와 자신에 대한 적절한 개방이 필요하다. 또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초기 상대방의 신용을 얻는 행동이 중요하다. C는 지속(continuation)단계이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관심과 표현 등이 단계에 중요한 것은 상호성이다. D는 악화(deterioration)단계이다.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으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관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 경우 갈등을 극복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면 상대방이 접근해 오기를 기다리게 되면 관계는 악화된다. 악화단계에서 서로의 노력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종결이 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 E는 종식(ending)으로 자신들이 유지해 온 관계를 부정하고 회피하게 되면 관계는 유지하기 어려워 종결된다. 그러나 서로의 신뢰를 가지고 다시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헌신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관계회복이 이루어져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진다. Altman과 Taylor(1973, 1987)의 사회침투이론은 친밀한 관계의 발달을 서로에 대한 사회적 침투과정으로 서로의 정신세계에 개입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사회침투이론에서는 관계의 발전 단계를 5단계로 제시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계가 발전함에 있어서 피상적인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보다 더 깊은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외부에서 중심으로 향하여 좀 더 핵심적인 관계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인 지향단계(orientation)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신의 공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단계이며 서로에 대한 서로의 공통관심사에 대해 피상적인 정보가 오고간다. 두 번째 단계인 탐

색적 정서교환 단계(exploratory affective exchange)는 가벼운 자기개방을 통해 정서 교류를 하며 정보의 최초 전개와 노출이 더 깊은 단계로 향한다. 세 번째 단계인 정서 교환 단계(full affective exchange stage)에서는 사적인 주제에 폭넓게 접근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인 안정적 교환 단계는 서로의 반응 또는 행동을 예측할 만큼 친밀해지며 서로의 행동과 반응을 잘 예측할 수 있게 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탈침투 단계이다. 오해, 갈등, 관심감소 등의 상황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도 받았지만 회피하거나 관계를 해체하기도 한다(Altman & Taylor, 1973, 1987; 이은순, 2001 재인용). 사회 침투이론은 관계의 발전을 일련의 과정으로 서술하며 관계 발전 과정에서의 자기 노출을 내용으로 포함하는 동시에 자기 노출 시기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Reardon, 1997, 임칠성 역; 조수연, 2013 재인용). 이와 같이 관계의 발달모델들의 공통점은 각 발달 단계들은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겪는 과정이며 꼭 순차적으로 겪지 않을 수 있다(Reardon, 1997, 임칠성 역). 즉, 관계의 발전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어떤 단계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면서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이상 관계의 발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탈이나 해체의 현상도 일어날 수 있으나 서로가 노력하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계는 발전하거나 쇠퇴하기를 반복한다. 또한 상담과정에서의 작업동맹도 형성되어 상담이 진행될수록 변화가 있다. 작업동맹의 변화 즉 변동(Fluctuation)은 작업동맹에서의 긴장

(strain)(Bordin, 1994), 작업동맹의 약화와 회복(Lansford, 1986), 작업동맹에서의 위기(rupture)(Safran, 1993a, 1993b; Safran, Crocker, McMMain, & Murry, 1990; Safran & Muran, 1996, 2000; Safran & Segal, 1990) 등 다양한 용어로 개념화되었다(민경화, 2012 재인용). 작업동맹은 상담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대인 관계적 과정으로 형성된다(이정화, 2009). 대인 관계적 과정은 균열이 있고, 이 균열이 회복된 경우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Knapp와 Vangelisti 관계발전 모형(2008), Levinger의 ABCDE모형(1980, 1983), Altman과 Taylor(1973, 1987)의 사회침투이론). Bordin(1976, 1994)또한 균열(tear)과 회복(repair)이 관계를 강하게 만들고 내담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균열과 회복은 상담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였다. 작업동맹 위기는 치료적 관계 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일종의 긴장으로 둘 간의 복잡한 대인적 과정이다(Samstag, Muran, & Safran, 2004). 위기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자의 특정한 치료적 관계의 맥락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어나는 경험들을 포함하는 상호 작용적 과정이다(이정화, 2009). 상담자가 작업동맹의 위기를 초기에 일찍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성공적 상담의 결정적 요소이며 작업동맹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잠재적인 변화의 촉매가 된다(Safran et al, 1990). 따라서 작업동맹 변화에 따른 발달유형을 기술하고자 한다.

Gaston(1990)은 내담자의 작업동맹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상담과정에 걸쳐 변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상담자-내담자 관계에서 위기가 극복될 경우 작업동맹은 고저-고의 형태를 띠며, 이러한 변화형태가 좋은 상담성과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

장은 Mann(1973)의 단기 상담 이론과 일치한다. 그는 상담의 3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상담에 대한 긍정적 시기이고 두 번째 단계는 좌절과 부정적 반응의 시기이며 마지막 시기는 초기의 지각보다는 좀 더 현실에 기초한 긍정적인 반응의 시기라는 것이다. 더불어 Horvath, Gaston와 Luborsky(1993)는 작업동맹의 발달 두 단계를 제안하였다. 초기 또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긍정적인 작업동맹이 형성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오래된 신경증적 패턴이 시작하지만 점점 상담자는 내담자와 작업하면서 내담자가 인식한 작업동맹의 수준과 강도를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그 후 Gelso와 Carter(1994)는 단기상담에서 초기에 형성한 강한 작업동맹은 상담의 중반에 약화되었다가 후반부에 다시 상승한다고 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초기에 수립된 강한 작업동맹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성공적인 상담에서는 초기의 좋은 작업동맹이 감소하고 다시 초기 수준 혹은 그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맹의 발달유형과 성과간의 관계에서 상담자의 작업동맹 평정이 상승형일 때 상담성과와 유의미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Kivlighan & Shaughnessy, 1995).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맹의 발달 패턴과 상담성과 간의 다양한 관계를 발견하였다(Patton, Kivlighan, & Multon, 1997). 특히, 상담 과정에서 작업동맹 수준이 높은 경우와 고-저-고의 발달 패턴이 내담자가 평정한 성과와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최근 연구인 Zilcha-Mano, Sigal, Errazuriz와 Paula(2017)의 연구에 따르면 내담자가 평정한 166명의 1회기에서 4회기에 걸쳐 작업동맹의 변화를 보았더니 초기 상승형, 초기 위기해결형, 초기 위기형의 세 가지

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이는 상담단계에서 초기에도 작업동맹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초기 작업동맹 발달유형과 상담성과에서 초기 상승형과 초기 위기해결형이 상담성과를 예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기 작업동맹 발달유형 중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초기 상승형과 위기를 해결한 초기 위기해결형은 이후의 작업동맹의 강화를 예측하였으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초기 위기형은 이후의 작업동맹에도 크게 변화가 없었다(Zilcha-Mano, Sigal, Errazuriz, & Paula, 2017). 비슷한 맥락으로 작업동맹의 변화와 발달패턴에 관한 국내 논문을 보면 상승형, 위기해결형, 정체형 등의 3가지 형태를 확인하였으나 상담성과와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였다(이정화, 연문화, 2009; 김지환, 정재홍, 2013). 최근 이은주(2016)의 연구에 따르면 내담자의 작업동맹은 2차 곡선형(상승형)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담자의 작업동맹은 선형으로 증가하는 변화 형태 즉, 상승형을 나타냈다. 그리고 내담자가 인식한 작업동맹 변화 형태는 상담성과와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상담자가 인식한 작업동맹의 변화 형태와 상담성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관계발달모델과 같이 작업동맹 또한 변화하여 그에 따른 발달패턴이 있으며 관계에서 점진적으로 좋아지기 보다는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작업동맹 발달유형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작업동맹에 대한 측정시기와 측정도구 그리고 성과에 대한 측정시기 및 측정도구에 대한 부분을 제고해 보아야 할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측정대상과 사례 수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제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연구

상담자와 강한 동맹을 수립한 내담자들은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Horvath & Symonds, 1991; Maritn, Garske, & Davis, 2000). Horvath와 Symonds(1991) 1975-1991년 까지 작업동맹과 최종적 상담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메타분석한 결과 작업동맹이 상담성과를 예언하는 강력한 변인임을 말해주었다.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측정시기에 따라 초기, 중기, 종결기로 나누어 상담성과와의 관계와 작업동맹 점수의 합 또는 평균과 상담성과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담초기의 작업동맹이 최종상담성과에 대해 강한 예측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상담 2회기 직후(Greenberg & Webster, 1982), 3회기 직후(Moseley, 1983), 처음3회기(1-3)에 측정(O'Malley, Suh, Strupp, 1983)한 작업동맹수준과 최종상담성과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상담초기에 작업동맹이 최종상담성과와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최종상담성과에 대한 상담초기의 작업동맹 형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양은 많지 않으나 상담 중기의 작업동맹과 최종적 상담성과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 의하면 작업동맹은 내담자와 관찰자가 평정한 모두 상담성과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작업동맹의 하위 차원 중 내담자 몰입과 상담자가 제공하는 조건은 상담자가 평정한 상담성과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Windholz & Silberschatz, 1988). 이밖에 종결기의 작업동맹이 최종상담성과를 가장 잘 예언함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Gaston, Marmar, Gallagher, & Thompson, 1991; Luborsky et al., 1983). 이상과 같이 특정

시점에 작업동맹과 최종상담성과 연구와 달리 상담 진행과정의 여러 시점에서 작업동맹의 수준을 측정하여 합산 또는 평균을 내어 최종적으로 상담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Gomes-Schwartz(1978) 작업동맹의 탐색과정, 상담자가 제공하는 조건, 내담자 몰입이 상담성과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본 연구에 의하면 작업동맹의 내담자 몰입차원과 상담자와 관찰자가 평정한 전반적인 상담성과와 상담자가 평정한 주호소문제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탐색적 과정은 상담자가 제공하는 조건과 상담성과와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외에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상담성과의 관계에서 작업동맹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성과를 잘 예언하는 연구들이 있다(Bachelor, 1991; Eaton, Abeles, & Gutfrend, 1988; Marmar, Weiss, & Gaston, 1989; ). 이와 같이 측정시기에 따라 초기와 종결기에 측정한 작업동맹이 상담성과를 잘 예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작업동맹의 합산 점수, 평균점수와 상담성과와의 관계를 보았을 때 작업동맹의 점수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작업동맹 점수가 높을수록 최종상담성과를 잘 예측함을 보여주고 있다.

### 논 의

본고의 논의에서는 연구 의의 및 추후 연구 방향을 위한 제언과 본고의 한계를 다루고자 한다.

#### 연구 의의 및 제언

앞서 보았듯이, 상담관계는 전이, 실제관계,



작업동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작업동맹은 상담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작업동맹의 중요성에 따라 작업동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담자의 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상담관계에서 작업동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발생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작업동맹이 다른 구성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등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서야 비로소 작업동맹에 집중하여 긍정적인 상담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작업동맹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동맹 형성과 연구흐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작업동맹 연구의 초석이 되는 명확한 작업동맹의 개념 정립 및 관련된 다양한 주제 정리를 통해 작업동맹 연구의 진일보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작업동맹 연구는 작업동맹, 치료적 동맹, 치료적 관계 또는 상담(협력)관계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국내에서도 1992년을 처음으로 학술지 및 학위논문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이에 동맹에 대한 개념 정리 및 그에 따른 측정도구를 살펴보았고 작업동맹과 유사개념과의 구별을 위해 개념과 구성요인, 측정도구 등을 통해 개념적으로 무엇을 측정하는지 비교 설명하여 작업동맹 개념의 이해와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었을 것이다.

1992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작업동맹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김은하, 박승민(2011)의 작업동맹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보면 많은 연구들이 변인 연구들이다. 구체적으로 작업동맹을 과정변인으로 간주하고 다른 과정변인들과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가장 많았고, 작업동맹과의 영향관계

를 살펴본 관련 변인으로 내담자 변인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고에서 그동안의 국내외의 작업동맹 연구를 살펴보니 작업동맹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작업동맹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 작업동맹과 성과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작업동맹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를 통해 작업동맹 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관계라고 할 때 인간관계와 대인관계를 혼용하고 있으나 대인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하며 여러 상황과 과제해결에 있어 상호의존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두 사람 사이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다. 이는 소수, 특히 두 사람 사이의 1대1 관계를 의미한다(한광희, 1986; 강소영, 2000). 인간관계의 개념은 산업 및 행정조직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조직의 목표달성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생산 및 능률향상을 전제하여 그 의미가 한정되어 발달하였다(한광희, 1986). 즉 인간관계는 1대 1의 관계가 아니라 조직과 조직의 효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강효주, 2009). 관계에 대한 정의를 비추어 볼 때 상담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인관계이다. 이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관계형성이론과 관계발전 이론들에서 작업동맹 형성과 변화에 대한 접점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차후 연구에서는 상담의 어떤 상황에서 작업동맹이 형성되는지 작업동맹 경로 모형개발 연구 및 작업동맹 본질에 대한 경험적 연구, 작업동맹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매개요인 연구 등 다양한 방향성을 지닌 작업동맹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업동맹 형성에 저해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필요

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형성 모델에서 작업동맹 형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찾고자 하였다. 관계형성모델의 상호존이론, Rusbult의 투자 모형, Heider의 인지적 조화이론, Newcomb의 A-B-X이론 등의 이론적 모델을 바탕으로 작업동맹 형성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형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Knapp와 Vangelisti 관계발전 모형(2008), Levinger의 ABCDE모형(1980, 1983), Altman과 Taylor(1973, 1987)의 사회침투이론 등 관계발달모형에서 작업동맹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찾고자 하였다. 관계발달모델들의 공통점은 각 발달 단계들은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겪는 과정이며, 꼭 순차적으로 겪지 않을 수 있다(Reardon, 1997, 임철성 역). 상담기간 동안 작업동맹도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는 존재한다. 관계발달모델을 바탕으로 상담기간 동안 작업동맹 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작업동맹 발달유형과 상담성과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연구의 한계점

이상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국내 작업동맹 연구는 작업동맹, 치료적 동맹, 치료적 관계 또는 상담(협력)관계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작업동맹은 용어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어떤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본고는 개념 정리 및 측정도구 등 이론적 정립을 중

심으로 서술하다보니 연구 설계를 비교, 분석, 평가하는 데에는 소홀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해 작업동맹 관련 변인들을 종합하는 여러 통계기법들이 사용되어진다면 작업동맹의 매개 및 작업동맹 형성에 저해요인 등을 추가한 연구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작업동맹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관계형성이론과 관계발달모형에서 작업동맹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는 대인관계의 모델로서 상담관계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작업동맹의 특수성을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상담관계 전반 또는 작업동맹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담 장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그에 따른 개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작업동맹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성과 발달모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담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작업동맹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지식제공 뿐만 아니라 상담실제 적용에 유용할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소영 (2000). 중학생의 사회성 측정지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혜영 (1995). 상담자 경력에 따른 상담협력관계의 차이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효주 (2009). 대인관계성향과 대학생활적응과

- 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정은 (1999). 내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자의 발달수준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정은 (2006). 내담자가 지각한 초기 작업동맹에 관련된 내담자 애착유형과 상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상담*, 24, 5-24.
- 김동민 (1993). 상담 초기 작업동맹 형성에 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 상호작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경 (1992). 상담자-내담자 초기 협조관계의 지각과 언어 상호작용 유형과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은, 김동민 (2014). 대학생 내담자의 작업동맹 지각과 상담자-내담자 언어 상호작용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4), 1385-1402.
- 김수연, 장재홍 (2011).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기대가 작업동맹 및 상담성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9(2), 155-170.
- 김은하, 박승민 (2011). 작업동맹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25.
- 김종운 (2018).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지민, 정재홍 (2009). 청소년 내담자의 애착과 상담기대가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2349-2365.
- 김지은, 이장호 (1994). 초기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성과 작업동맹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1), 99-118.
- 김지환, 장재홍 (2013). 청소년 상담에서 작업동맹의 변화 형태와 수준에 따른 상담성과. *상담학연구*, 14(6), 3575-3594.
- 김춘경 (2016). *상담학사전*. 서울: 학지사.
- 김충희 (1999). 상담관계에서의 작업동맹(개관). *학생생활연구*, 12, 102-113.
- 김현숙, 심혜숙 (2012). 내담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전이 및 작업동맹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485-504.
- 민경화 (2012). 상담자가 인식한 작업동맹 위기표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해숙, 김명권 (2005). 상담자의 성역할정체감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8(1), 31-43.
- 서영석, 조화진, 조민아, 김민선, 최바울, 고은영, 안하얀, 백근영, 최영희, 석분옥, 이정선, 민경화, 김효주, 박준오 (2012). 상담자 즉시성이 상담회기평가 및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회기-내담자-상담자 3수준 다층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753-780.
- 설기문 (2002).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성예경, 최한나 (2011). 내담자의 타당화 경험이 작업동맹과 회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작업동맹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315-332.
- 손진희, 유성경 (2004). 내담자의 자기은폐 수준에 따른 상담회기, 작업동맹 평가 및 상담자-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327-345.
- 신희천, 이장호 (1998). 내담자의 방어성에 따른 상담 상호작용 형태와 작업동맹.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63-81.
- 심정미 (2017).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내담자 변인에 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경자 (1993). 상담자의 경험과 상담 초기 작업 동맹 및 상담회기의 효율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희섭, 정현희 (2012). 내담자의 애착과 전이 애착, 상담자의 애착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과 상담성가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5), 2463-2482.
- 이수정 (2005). 상담자, 내담자 애착유형이 작업 동맹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 김봉환 (2016). 대학생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6(2), 19-44.
- 이은순 (2001).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호감추구 전략과 구애전략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16). 작업동맹과 실제관계의 변화 형태와 상담성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화 (2009). 치료동맹의 위기 해결 과정. 상담학연구, 10(1), 187-217.
- 이정화, 연문희 (2009). 치료동맹의 발달유형과 상담성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24.
- 전용오 (2000). 대학생상담에서 상담자-내담자 동맹관계와 상담성과 간의 연속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민선, 김지현 (2013). 남성상담자의 감정억제와 공감, 내담자의 작업동맹과 상담만족. 상담학연구, 14(1), 711-729.
- 조민경, 장유진 (2018). 상담자의 경력이 작업 동맹에 미치는 영향: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자 특성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9(6), 129-153.
- 조성호, 이장호 (1997). 내담자 저항과 내담자 반발성, 상담자 개입 특성 및 작업동맹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101-127.
- 조수연 (2013). 페이스북에서 브랜드 자기노출과 친밀감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효과 차이 연구: 사회침투이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주 (1997). 내담자의 초기 애착과 상담자의 상담경력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재현, 최한나 (2017). 상담자 5요인 성격특성과 작업동맹과의 관계에서 상담자 발달수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93-310.
- 조화진, 김민정 (2018). 상담자 애착과 작업동맹의 관계: 역전이 관리능력과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1), 41-64.
- 주은선, 박영주 (2015). 상담자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및 상담성가에 영향을 주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게재논문(1983-2012).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453-484.
- 최정호, 한영주 (2015). 청소년 상담에서 내담자의 상담기대, 작업동맹, 상담자 발달수준이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4), 113-132.
- 최한나 (2010). 상담관계의 두 가지 측면: 작업 동맹과 실제관계. 인간이해, 31(2), 85-101.
- 하철오, 신희천 (2014). 상담자,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와 작업동맹이 상담회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79-901.
- 한광희 (1986).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

-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은주, 최한나 (2013). 역전이 활용능력과 상담만족의 관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이해*, 34(1), 75-91.
- 홍정순 (2017). 상담자의 진정성과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과의 관계: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9(3), 577-605.
- 황옥경 (2002). 내담자의 애착유형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작업동맹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7, 115-136.
- 황인호 (2005).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47-563.
- 황진희 (2000). 작업동맹에 대한 내담자 지각: 질적 분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ckerman, S. J., & Hilsenroth, M. J. (2003). A review of therapist characteristics and techniques positively impacting the therapeutic allia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1), 1-33.
- Altman, I., & Taylor, D. (1973).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Altman, I., & Taylor, D. (1987). *Communic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ocial penetration theory*. In M. E., Roloff & G. R., Miller(Eds.), *Interpersonal processes: New directions in communication research*(pp. 257-277).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Bachelor, A. (1991). Comparison and relationship to outcome of diverse dimensions of the helping alliance as seen by client and therapis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8(4), 534-539.
- Beutler, L. E., Malik, M., Alimohamed, S., Harwood, T. M., Talebi, H., Noble, S., & Wong, E. (2004). Therapist variables. In M. J. Lambert (Ed.), *Bergin and Garfiel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5th ed, pp. 227-306), New York: Wiley.
- Bordin, E. S. (1976).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6, 252-260.
- Bordin, E. S. (1980, June). *Of human bonds that bind of fre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Psychotherapy Research, Pacific Grove, CA.
- Bordin, E. S. (1989, April). *Building Therapeutic alliances: The base for integ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the Exploration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Berkeley, CA.
- Bordin, E. S. (1994). Theory and research of the therapeutic working alliance: New direction s. In A. O. Horvath & L. S. Greenberg(Eds.), *The working alliance: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Wiley.
- Buber, M. (1970). *I and Thou,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Simon & Schuster.
- Cabaniss, L. Cherry., & Douglas, J. (2015). *정신역동적 정신치료*. (박용천, 오대영 역). 서울: 학지사.
- Diener, M. J., & Monroe, J. 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therapeutic alliance in individual psychotherap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therapy*, 48(3), 237.
- Dunkle, J. H., & Friedlander, M. L. (1996).

- Contribution of therapist experienc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to the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456-46.
- Eaton, T. T., Abeles, N., & Gutfreund, M. J. (1988). Therapeutic alliance and outcome: Impact of treatment length and pretreatment symptomatology.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5*(4), 536-542.
- Foreman, S., & Marmer, C. R. (1985). The rapist actions that address initially poor therapeutical alliance in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 922-926.
- Fosha, D. (2000). Meta-therapeutic process and the affects of transformation: Affirmation and the healing affects.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10*(1), 71-97.
- Freud, S. (1912/ 1966). On beginning the treatment. In J. Strachey(E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y works of Sigmund Freud, Vol. 12*. London: Hogarth Press.
- Gaston, L. (1990). The concept of the alliance and its role in psychotherapy: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Psychotherapy, 27*, 143-153.
- Gaston, L., Marmar, C., Gallagher, D., & Thompson, L. (1991). Alliance prediction of outcome beyond in-treatment symptomatic change as psychotherapy processes. *Psychotherapy Research, 1*(2), 104-113.
- Gaston, L., & Ring, J. M. (1992). Preliminary results on the inventory of therapeutic strategies, and theoretical. *Journal of Psychotherapy Research and Practice, 1*, 1-13.
- Gelso, C. J., & Carter, J. A. (1994). Components of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Their interaction and unfolding during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41*(3), 296-306.
- Gelso, C. J., & Mohr, J. J. (2001). The working alliance and the transference counter transference relationship: Their manifestation with racial ethnic and sexual orientation minority client and therapists.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10*, 51-68.
- Gomes-Schwartz, B. (1978). Effective in gredients in psychotherapy: Prediction of outcome from process variab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023-1035.
- Greenberg, L. S., & Mitchell, S. A. (1983).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New York: Books.
- Greenberg, L. S., & Webster, M. C. (1982). Resolving decisional conflict by gestalt two-chair dialogue: Relating process to outcom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5), 468-477.
- Greenson, R. R. (1965). The working alliance and the transference neuroses. *Psychoanalysis Quarterly, 34*, 155-181.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enry, W. P., & Strupp, H. H. (1994). *The therapeutic alliance as interpersonal process*. In A. Horvath & L. S. Greenberg (Eds.) *The working alliance: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Wiley.
- Highlen, P. S., & Hill, C. E. (1984). *Factors affecting client change in individual counseling: Current status and theoretical speculations*. In S. W.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pp. 334-396). New

- York: Wiley.
- Horvath, A. O. (1994). *Empirical research of the alliance*. In A. O. Horvath & L. S. Greenberg (Eds.), *The working alliance: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Wiley.
- Horvath, A. O., Gaston, L., & Luborsky, L. (1993). *The therapeutic alliance and its measures*. *Psychodynamic treatment research: A handbook for clinical practice*(pp. 247-273). New York: Basic Books.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23-232.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94). Introduction. In A. O. Horvath & L. S. Greenberg(Eds). *The working alliance: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Wiley
- Horvath, A. O., & Luborsky, L. (1993). The role of the therapeutic alliance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561-573.
- Horvath, A. O., & Symonds, B. D. (1991). 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2), 139-149.
- Jones E. E. (2000). Clinical signification: A statistical approach to defining meaningful change in psychotherapy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12-19.
- Kanpp, M. L., & Vangelisti, A. L. (2008)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s*. Boston: Allyn & Bacon.
- Kelley, H. H., & Thibaut, J. W.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A theory of interdependence*. New York: Wiley.
- Kivlighan, D. M. (2007). Where is the relationship in research on the alliance? Two methods for analyzing dyadic data.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423-433.
- Kivlighan, D. M. Jr., Patton, M. J., & Foote, D. (1998). Moderating effects of client attachment on the counselor experience-working alliance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274-278.
- Kivlighan, D. M. Jr., & Shaughnessy, P. (1995).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the working alliance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3), 338-349.
- Kivlighan, D. M. Jr., & Shcmitz, P. J. (1992). Counselor technical activity in cases with improving working alliances and continuing-poor working allia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32-38.
- Lansford, E. (1986). Weakenings and repairs of the working alliance in short-term psychotherap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7*, 346-366.
- Levinger, G. (1980). Toward the analysis of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 16*, 510-544.
- Levinger, G. (1983). Development and change. In H. H. Kelley, E. Berscheid, A. Christensen, J. H. Harvey, T. L. Huston, G. Levinger, E. McClintock, L. A. Peplau, & D. R. Peterson (Eds). *Close Relationships*(pp. 315-359). New York: Freeman.
- Linehan, M. M. (1997). Validation and psychotherapy. In A. C. Bohart & L. S. Greenberg (Eds), *Empathy reconsidered new*

- directions in psychotherapy*(pp. 353-39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uborsky, L. (1976). *Helping alliances in psychotherapy*. In J. L. Cleghorn (Eds), *Successful psychotherapy* (pp. 92-116). New York: Brunner/Mazel.
- Lynch, T. R., Champman, A. L., Rosenthal, M. Z., Kuo, J. R., & Linehan, M. M. (2006). Mechanism of change in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Theoretical and empirical observa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 459-480.
- Luborsky, L., Crits-Christoph, P., Alexander, L., Margolis, M., & Cohen, M. (1983). Two helping alliance methods for predicting outcomes of psychotherap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orders, 171*, 823-830.
- Luborsky, L., McLellan, A. T., Woody, G. E., O'Brien, D. P., & Auerbach, A. (1985). Therapist success and its determin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602-611.
- Mallinckrodt, B., Coble, H. M., & Gantt, D. L. (1995). Working alliance, attachment memories, and social competencies of woman in brief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79-84.
- Mallinckrodt, B., & Nelson, M. L. (1991). Counselor training level and formation of the psychotherapeutic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3-138.
- Mallinckrodt, B., Porter, M. J., & Kivlighan, D. M. (2005). Client attachment to therapist, depth of in session exploration, and object relations in brief psychotherapy.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2*, 85-100.
- Mann, J. (1973). *Time-limited psycho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mar, C. R., Gaston, L., Gallagher, D., & Thompson, L. W. (1989). Alliance and outcome in late-life depress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7*, 464-472.
- Marmar, C. R., Weiss, D. S., & Gaston, L. (1986). Towards the validation of the California therapeutic alliance rating system. *Psychological Assess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1), 46-52.
- Martin, D. J., Garske, J. P., & Davis, M. K. (2000). Relation of the therapeutic alliance with outcome and other variable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In Session, 61*, 198-208.
- Marziali, E. (1984). Prediction of outcome of brief psychotherapy from therapist interpretive intervention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1*, 301-305.
- Mitchell, S. A. (2000). *Relationality: From attachment to inter subjectivity*. Hillsdale, N. J.: The Analytic Press.
- Moseley, D. (1983).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its association with outc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Newcomb, T. M. (1961). *The acquaintance proces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Newcomb, T. M. (1971). *Dyadic balance as a source of clues about interpersonal attraction*. In B. I. Murstein (Ed.) *Theories of attraction and love*(pp. 31-45). New York: Springer.
- Norcross, J. C. (2002). *Psychotherapy Relationship that work: Therapist contributions and responsiveness to patien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Connor, Seini, Kivlighan, Dennis M., Hill, Clara E., Gelso, & Charles J. (2019). Therapist-client agreement about their working alliance: Associations with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6(1), 83-93.
- O'Mally, S. S., Suh, C. S., & Strupp, H. H. (1983). The Vanderbilt Psychotherapy Process Scale: A report on the scale development and a process-outcom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4), 581-586.
- Patton, M. J., Kivlighan, D. M., & Multon, K. D. (1997). The missouri psychoanalytic counseling research project: Relation of change in counseling process to client outcom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189-208.
- Reardon, K. K. (1997). 대인의사소통. (임철성 역). 서울: 한국문화사.
- Romano, V., Fitzpatrick, M. R., & Janzen, J. I. (2008). Global attachment, attachment to counselor, and session exploration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 495-504.
- Rusbult, C. E. (1980).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friendships. *Representativ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11, 96-105.
- Safran, J. D. (1993a). Breaches in the therapeutic alliance: An arena for negotiating authentic relatednes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30, 11-24.
- Safran, J. D. (1993b). The therapeutic alliance ruptures as a trans theoretical phenomenon: Definitional and conceptual issues.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3, 33-49.
- Safran, J. D., Crocker, P., McMain, S., & Murray, P. (1990). Therapeutic alliance rupture as therapy event for empirical investigation. *Psychotherapy*, 27, 154-165.
- Safran, J. D., & Muran, J. C. (1996). The resolution of ruptures in the therapeutic alli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447-458.
- Safran, J. D., & Muran, J. C. (2000). *Negotiating the therapeutic alliance: A relational treatment guide*. New York: Guilford Press.
- Safran, J. D., & Segal, Z. V. (1990). *Interpersonal process in cognitive 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Samstag, L. W., Muran, J. C., & Safran, J. D. (2004). *Defining and identifying alliance ruptures*. In D. Charman(Ed.), *Core processes in brief psychodynamic psychotherapy: Advancing effective practice*(pp. 187-214). Hillsdale, NJ: Erlbaum.
- Sandra B., Annily S., Alison H., & Katherine B. (2016). Client and therapist attachment styles and working alliance.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3(2), 155-165.
- Sexton, T. L., & Whiston, S. C. (1994). The status of the counseling relationship: An empirical review,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2(1), 6.
- Skovholt, T. M.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Burnout prevention and self-care strategies for counselors, therapists, teachers, and health professional*. Boston: Allyn & Bacon.
- Sterba, R. (1934). The fate of the ego in analytic 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15, 117-126.
- Truax, C. B. (1963). Effective ingredients in

- psychotherapy: An approach to unrevealing the patient-therapist inter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0(3), 256-263.
- Windholz, M. J., & Silberschatz, G. (1988). Vanderbilt psychotherapy process scale: A replication with adult out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1), 56-60.
- Yalom, I. D. (2007). 실존주의 심리치료. (임경수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0년에 출판)
- Zetzel, E. (1956). Current concepts of 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Psychoanalysis*, 37, 369-375.
- Zilcha-Mano. Sigal, Errazuriz., & Paula. (2017). Early development of mechanisms of change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change and treatment outcome: the case of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5(5), 508-521.
- Zilcha-Mano. Sigal, Muran, J. Christopher., & Eubanks. (2018). When therapist estimations of the process of treatment can predict patients rating on outcome: The case of the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6(4), 398-402.

원 고 접 수 일 : 2018. 12. 21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2. 26

게 재 결 정 일 : 2019. 03. 08

## **Theoretical Understanding and Working Alliance Research Trends in Counseling**

**Jung-Suk Lee**

**Myoung-Ja Keum**

Daegu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reviews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to promote theoretical understanding and examine trends in working alliance research. In a working alliance the consultant and client cooperate to move toward a shared goal based on a conscious and realistic relationship. Working alliance has been identified as a powerful predictor of counseling outcomes. This study describes conceptual changes, measurement tools, and differentiation from related concepts. The relationship formation model and relationship development model centering on interaction, are also explored in order to find a theoretical point of contact for the formation and change. Client and counselor variables affecting working alli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easurement timing and outcomes are examined.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working alliance research are elaborated.

*Key words* : *working alliance, counseling outcome, working alliance development pattern*